불기 2570(2026)년 법주사 방생법회

- **일　　시** : 불기 2570(2026)년 **3**월 **5**일(음.1월 17일) **목**요일
- **동 참 금** : **5**만원
- **방 생 지** : 불갑사
- **사찰참배** : 백양사

순	지 역	구 분	접 수 자	연 락 처	출 발 지	출발시간
1	속리산	관음회	여일심 (황인숙)	010-6635-6780	속리산농협 앞	07시 30분
2			일여행 (김인순)	010-8795-6782		
3	보 은	보현회	금강화 (정순화)	010-8421-4939	보은하상주차장	07시 40분
4		불교대학	효 광 (염정인)	010-7477-1935	속리산농협 앞	07시 30분
5	청 주	법주회	환희주 (김명숙)	010-9423-3858	청주체육관 앞	8시 00분
6		국악합창단	무진향 (곽나윤)	010-5482-5862		
7		지장회	불심행 (이은자)	010-5486-7960		
8		다도회	보문심 (진순자)	010-5498-5546		
9		보살사	사무장 혜원(이민희)	010-5361-3506	보살사	
10		안심사	사무장 선혜(김성희)	010-9597-2599	안심사	
11	대 전	대전지역	자비심 (육영미)	010-9559-9223	선샤인호텔	08시 20분
12		신탄진	대선행	010-6423-1077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6 | 2

●●벽화이야기

신찬 선사



고령신찬 선사古靈神贊禪師는 중국 당나라 때, 복주福州 고령사古靈寺로 출가하여 계현戒賢 스님의 문하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어느 날 문득 산문을 나가서 당시 선승으로 유명한 백장 선사를 찾아가 마음을 깨닫고 다시 은사에게로 돌아왔다. 은사인 계현 스님이 물었다.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돌아왔느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신찬 스님이 목욕할 때 은사스님의 등을 밀어드리다가 중얼거렸다. "호호법당好好法堂이여, 이불불령而佛不靈이로다(법당은 참으로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은사스님의 육체를 법당에 비유한 것이고, 은사스님의 마음을 부처에 비유한 것이다. 은사스님이 눈치를 채고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휙 돌아보았더니 이번에는 다시 "불수불령佛雖不靈이나 야능방광也能放光이로다(부처가 영험은 없지만 능히 방광은 하는구나)." 스님의 마음은 신통치 않은데 눈빛만은 그럴 듯하다고 비꼬는 말이다.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방 안에서 창문 아래 앉아 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마침 벌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열려진 문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닫힌 창문의 창호지에 수없이 몸을 부딪혀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신찬 스님이 이런 시를 읊었다. "공문불긍출空門不肯出하고 투창야대치投窓也大痴로다 백년찬고지百年鑽古紙런들 하일출두기何日出頭期리요." "열린 문을 놔두고 닫힌 창문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 어리석구나! 백년 동안 묵은 종이를 뚫으려한들 어느 세월에 탈출할 날을 기약하리오!"라는 뜻이다.

열린 창문이란 벌이 나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부처님의 마음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고 '묵은 종이'란 창문에 붙어 있는 종이가 아니라 은사스님이 들여다보고 있는 경전을 빗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은사스님은 신찬 스님에게 다그쳐 물었는데, 그때서야 신찬 스님은 그동안 백장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노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은사스님은 대중에게 알려 법상을 차리게 하고, 제자를 법상으로 모셔 법문을 하도록 했다. 신찬 스님은 법상에 올라 백장 스님이 지으신 계송으로 법문을 했다.

"영광독요靈光獨耀하야 형탈근진逈脫根塵하며
체로진상體露眞常하야 불구문자不拘文字라.
심성무염心性無染하야 본자원성本自圓成하니
단이망연但離妄緣하면 즉여여불卽如如佛이니라."

"신령한 광명(불성)이 홀로 우뚝 빛나서 모든 티끌을 벗어났으며 본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의 본성품은 더러움이 없어서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망상만 여의면 곧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2 | 통권 409호



2 **벽화이야기** 신찬 선사
4 **이달의 법문** 설날, 마음을 새로이 하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설날에 올리는 찬탄讚歎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새해 아침에 현진 스님
10 **걸망메고** 겨울에도 피는 꽃 무진 스님
12 **인도 건축미술 순례 1** 인도국립박물관에서 만난 백제의 미소 안필섭
15 **법주사 템플스테이**
16 **법주사 공양미 / 법주사 행사일정**
17 **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18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19 **아름다운 법주사 법주회 / 국악합창단 / 다도반 법우님을 모집합니다**
20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21 **승려복지 후원 안내**
22 **설날 합동차례 / 병오년 정초신중기도**
23 **병오년 정월대보름 사천왕재**
24 **불기 2570(2026)년 법주사 방생법회**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2월호 통권 409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설날, 마음을 새로이 하다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새해 첫 달이 지나고, 다시 한 해의 문턱을 넘는 2월에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은 달력 한 장을 넘기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바로 세우는 수행의 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설날은 바로 그 '지금'을 점검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흔히 새해가 되면 복을 빌고, 액운을 막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지은 만큼 돌아오고,
과보는 반드시 인연을 따라 성숙합니다. 설날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발원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르게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는 전통 속에는 깊은 불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차례는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지만, 그 본뜻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조상은 과거의 나이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미래의 자손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설날에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의 삶을 공경하는 수행입니다.
세배 또한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몸을 낮추어 예를 갖추는 행위는 '하심'의 실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과 끝은 하심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낮아지면 길이 열립니다. 설날에 하는 큰절 한 번은 경전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몸을 낮추며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날을 보내며 종종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비교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불안이 뒤섞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설날에 괴로움이 커지는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반드시 실망을 불러옵니다. 설날을 수행자의 눈으로 본다면,
내려놓을 것을 점검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내는 마음, 남을 탓하는 습관,

설날을 지나며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얼마나 더 가지려 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더 내려놓을 것인가.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만큼 지혜는 자라고, 자비를 키우는 만큼 삶은 평안해집니다.

나만 옳다는 아집, 남보다 앞서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지혜는 또렷해집니다.
설날은 또한 인연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도반의 격려, 이름 없는 수많은 인연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설날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바로 연기법을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특히 설날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고, 한 번 더 참아내는 그 인욕의 공덕은 평생을 두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설날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새해의 시작에 우리는 흔히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잘 견디게 해달라',
'바르게 마주하게 해달라'고 발원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비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은
기도와 수행에서 나옵니다. 설날에 올리는 한 번의 정성된 예불이 한 해의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불자 여러분, 설날을 지나며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얼마나 더 가지려 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더 내려놓을 것인가.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만큼 지혜는 자라고, 자비를 키우는 만큼 삶은 평안해집니다.
새해의 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부처님 전에 합장하며, 남을 위한 발원 하나, 나를 다스리겠다는 서원 하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법당에 들어와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 길 끝에 반드시 밝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신행의 걸음이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설날에 올리는 찬탄讚歎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새해를 맞아 법주사를 찾아주신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자
속리산 길을 오르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미 수행의 공덕이 깃들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새로움'이란
달력이 바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법주사를 찾은 이 마음, 부처님 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한 그 서원이 바로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가장 큰 복덕의 씨앗입니다.
법주사는 예로부터 기도와 수행, 그리고 쉼이 함께
어우러진 도량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수행입니다. 법주사를 찾은 시간만큼은
결과와 성취를 내려놓고, '지금 이 마음'을
살피는 데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절을 찾습니다. 건강, 가정의 평안, 사업과 직장의
안정을 발원하는 마음은 모두 소중합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소원 성취의 바탕은
정성 이전에 삶의 태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욕심을 키우기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쌓일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이 도량 한켠에서는 동안거를 마무리할
시기를 앞두고 선원 스님들께서 묵묵히 정진의
시간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대중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선원에서 흘린 땀과 침묵은
이 도량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긴 겨울 동안 화두 하나를 붙들고 자신과 마주하신
스님들의 정진에, 주지로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동안거는 단지 일정 기간의 수행이 아닙니다.
추위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며, 말 없는 서원의 연속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살피는 그 과정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선원 스님들께
모든 불자를 대신하여 감사와 찬탄을 드립니다.
곧 동안거 해제를 맞이하면, 스님들께서는
다시 대중 속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선방에서
다져온 수행의 힘은 그때 비로소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걸음 하나에까지
배어 있는 수행자의 향기가 대중에게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디 해제 이후에도
무리하지 마시고, 그동안 닦아온 마음의 힘을
일상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가시길 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과 선원 스님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쪽은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한쪽은 선방에서 마음의
근원을 밝힙니다. 이 두 길이 서로를 지탱하며
한국불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주사는 앞으로도 이 두 수행의 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량을 가꾸고, 수행과 신행이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발원합니다.
법주사를 찾은 모든 불자님들께서 한 해 동안
큰 탈 없이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안거를 원만히
이어오고 계신 선원 스님들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더욱 깊어져,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도량과 모든 인연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발원하며, 새해에도 법주사는
여러분의 수행과 신행의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새해 아침에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매번 감격스럽다. 내 생애 다시 없을 신년을 또 영접했으니 실로 벅차지 않을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변고가 겹치는 사바에서 무탈하게 묵은 날을 보내고 새날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사다난했던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다행이다.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고마워, 내 심장. 나를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어서,'라는 시 구절을 깊이 음미해본다.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어주어서 그것도 새삼 고맙다.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들으며 나를 다독이고 격려해 주었던 세월에게 감사의 경배를 올렸다. 무심한 세월이라지만 절대 무심하지 않았다.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세월에 기대지 않았다면 이렇게 숨 쉴 수 있었을까.

올해는 무슨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달성할 그 목표가 아예 없는 해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연중 일정표에 '목표 없는 게 목표'라서 예정된 행사나 계획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한 가지 일을 줄이고 나면 두 가지 일이 늘어나서 언제나 일복은 더 넘쳐났다. 무엇이든 너무 애쓰지 말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새해 결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금 게으르게
둘째 조금 느리게
셋째 조금 단순하게

여기서 게으르게 산다는 건 무슨 거창한 맹세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조금 느리게 산다는 건 지금 세상 속도와 한 발짝 뒤 쳐지게 걷는다는 뜻이며, 조금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일과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자는 개념이다. 이제부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약간 게으름을 피워도 무방할 것이며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살짝 밀쳐놓아도 상관없겠다. 초기 경전에서는 '내달리지도 뒤처지지도 않게'라고 적었는데 욕심이나 게으름도 이 정도 기준이면 될 것이다.

허둥지둥 사는 게 반드시 잘 사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소로가 〈월든〉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은 열 손가락 넘게 헤아릴 게 거의 없다. 당신의 일을 둘이나 셋으로 줄이라. 단순하게, 소박하게, 수수하게"라고 적었다.

다시 말해 인정에 속박되지 않는 삶은 복잡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저것 따지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바쁘다. 사사로운 인정에 매이면 얼굴을 내밀며 출석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손님을 청하지도 않고 응하지도 않았을 때 삶은 더 원숙하고 진중해진다. 올해는 반드시 요긴한 일이 아니면 사람과 크게 섞이지 않을 생각이다.

모두가 고만고만한 일로 바쁘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지나친 열정도 욕심에 기인한다. 우리의 생활 수준은 저 옛날 제후 부럽지 않게 호화를 누리고 있다. 그때와 견주어도 충분히 지니고 있는데 자꾸 뭔가를 요구하니깐 부족하게 느껴질 뿐 절대적 평균치는 이미 높다. 욕망을 넘어 지금은 과잉시대라는 표현을 쓴다. 지나친 욕망과 소비로 세상은 어지럽게 되어가고 정신도 조금씩 무너져 간다.

1985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줘'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많은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무려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저 문구는 유효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이다. 욕망을 늘 나를 흔들며 유혹하기에 그럴 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나를 수호해야 한다. 그래서 장 자크 루소는 "욕망은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거기가 불행의 지점이라는 것인데 멈추지 못하는 욕망을 말한 것이다. 과거를 들먹이지 않아도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인데 왜 우리는 자꾸 끌려갈까. 그러니까 단순 소박한 삶이 아니면 욕망의 확산을 제어해 줄 수 없다. 오늘의 문명 앞에 어떻게 삶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나도 암담하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명의 평균치가 곧 자신이다"

이 말의 주인공은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스몰빅〉의 저자 제프 헤이든이다. 무언가를 마음에 품으면 일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 인생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른바 업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다섯 명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내 주변의 일과 사람들은 내 수행의 현주소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게 내 욕망의 본질일지 모른다. 올해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하는 이 질문을 멈추면 안 되겠다.

겨울에도 피는 꽃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나무아미타불
법주사 불교대학 17기 도반님들께서
속리산면사무소를 찾아 속리산면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눔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진 회향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올해 불교대학은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속리산면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청주와 옥천, 멀게는 서울에서 까지 시간을
내어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불교대학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중에서도 신행활동과 봉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인연들이 모였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로서는 복이 충만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법주사 불교대학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와 속리산 가을축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체적으로 불교대학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불교대학 성지순례
역시 사중에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원만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금 마련의
토대가 되었던 불교대학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었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불교 공부의 꽃은 참회와 회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화합과 공심, 배려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회향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만큼, 기도 공덕이 쌓인 만큼
회향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나의 공덕이 됩니다.
저는 늘 비유로 말씀드리곤 합니다.
불교 공부를 통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 되었다면,
유치원생의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중학생 수준이라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이라면 고등학생에게 회향하면 됩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사회의 지성인이 되어,
혹은 큰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더 넓은 회향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불교가 오래전부터 실천해 온 사회 환원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 공부가 잘 되고 계신지,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 봉사에 나서고, 자체 기금을
운영하며, 사회에 환원하고, 서로 화합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깊은
감사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자와 비불자를 막론하고 절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가르침'으로 설명하기보다,
불교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각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돕는 일이 제가 맡은 역할이라 믿습니다.

불교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교를 알면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계절도 타지 않습니다.
모두 이미 발심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싹을 틔울
인연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도, 때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만큼, 지금 피운 만큼의 꽃을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 꽃이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불자님들의 회향이
그런 씨앗이 되어 조용히 세상에 뿌려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도국립박물관에서 만난 백제의 미소

안필섭 원광디지털대 교수

부처님의 가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불화를 그리는 불모佛母를
만나, 2024년 부산 대광명사 목종 스님의 증명 아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인도철학을 전공해 온 나에게
청아(아내의 호)님은 단지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 천착해 온 사유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명하며, 그 울림을 자신의 수행과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깨달음의 벗이었다.
학문과 수행, 사유와 형상이 서로를 비추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길을 걷는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었다.
그런 두 사람이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부처님의 숨결이 아직도 땅에 스며있는 인도의
불교 성지였다. 이 여행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인연의 깊이를 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순례였으며, 동시에 인도의 건축과 불교미술을
몸으로 느끼는 또 하나의 공부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여행은 2024년 겨울,
인도의 델리에서 시작되었다.
밝을 때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비행기가 두 세 시간 연착되는
바람에 결국은 어두워진 후 택시를 대절했다.
예약한 숙소는 여행객의 메카, 빠하르간즈
(Paharganj)가 아닌 하우즈 카스(Hauz Khas)였다.
대부분 인도 여행객들은 숙소가 많고,
유심을 구입해줄 대행업체가 있으며, 환전이 편한
빠하르간즈에 첫 숙소를 예약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누구나 거쳐 가는
빠하르간즈는 오히려 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빠하르간즈로 가면 한국인이든
한국어를 하는 인도인이든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로부터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시행착오를 스스로가
결정한 계획을 통해 겪고 싶었다.
선불택시는 혼잡한 델리의 퇴근길을 이리저리
비집고 달려 낯선 하우즈 카스의 대로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이 여행은 인도불교 답사이면서 동시에
신혼여행이기도 하다. 배낭과 캐리어를 두고 수없이
고민했지만, 신혼의 청아님에게 배낭을 메게 하기가
싫어 28인치의 가장 큰 캐리어 하나에
카메라 가방 두 개만 챙겼다. 거친 바닥에서
처음 캐리어를 끌며 잘못 선택했나 약간의 후회가



웃고 있는 부처님과 보살들 (인도국립박물관 소장, 필자 제공)



빠슈빠따 인장 (인도국립박물관 소장, 필자 제공)

있었지만, 카메라 가방 하나만 들고 가볍게 걷는
청아님을 보고는 이내 잘했다 싶었다.
숙소는 에어비엔비를 통해 예약했는데, 사전에
호스트와 채팅으로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놓은 상태였다. 적혀 있는 주소의 집에
도착하니 '그루버의 둥지(Grover's Nest)'라는
작고 귀여운 간판이 우리를 반겨준다. 과하지 않고
고풍스럽게 꾸며진 방으로 안내해준 호스트 스와란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주인이었다. 방에 짐을 놓고,
해결 못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택시에서
내렸던 큰 길로 가서 적당한 식당을 찾아 줄지어
있는 상가 앞길을 걸어보았다. 가게 하나하나가
궁금해 구경하고 싶었지만 나흘은 이곳 하우즈 카스에
있어야 하니 일단 허기부터 면하기 위해 채식을
전문으로 한다고 쓰여 있는 인도식 식당으로
들어갔다.
한가한 1층에 비해 안내 받아 올라간
2층에는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탈리와 토마토 수프를 시켰고, 양이 많은 탈리는
결국 남겼다. 일단 식사를 하고 나니 몸에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식사를 마치고 델리에서의 보금자리 그루버의
둥지로 돌아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느껴지는
이국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비쩍 말라
다리가 긴 처량한 개와 산발한 머리처럼 치렁치렁한
가지를 늘어뜨린 높은 나무는 이곳이 인도임을
실감케 해주었다.
이틀째. 오전에 인도 각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딜리핫(Dilli Haat)에서 인도세밀화 몇 점을
구입하고 구내의 씨킴(Sikkim)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밖으로 나와 오늘의 진짜 목적지인
인도 국립박물관으로의 이동은 마침 대기하고 있던
오토릭샤를 이용했다. 가격이 싸기는 했지만 겨울에
공기가 좋지 못한 델리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오토릭샤는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사람이 별로 없는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박물관에서 먼저 찾은 곳은 별관에 마련되어 있는
불교 유물 전시관이었는데, 책으로만 보던
작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에
압도되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는
수많은 불상과 조각을 보면서,
작은 감동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꽉 채워서 들어오는 벅찬 환희감에
이미 빠져있는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이촌의 국립박물관에 전시해도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들겠지만,
이 거대한 공간에 청아님과 나만이 연신 감동하며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웃고 있는 부처님과 보살의 상을 만났을 때,
어쩐지 서산 용현리의 마애여래삼존상과 비슷한
그 모습에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별관만 둘러보았는데도 시계는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것은 그 다음부터였다.
본관의 압도적인 크기에 이제 남아 있는 2시간 반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반겨준 유물은 인더스의 인장과 작은 조각들이었다.
인더스 문명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진 자료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나조차도
그 실물은 보지 못해 늘 미안했다.
이번 여행은 남의 사진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감동과는 별개로 유물의 그 실제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며, 동시에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인더스 인장에는 대체로 동물이 그려져 있고,
아직은 해독되지 않은 인더스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빠슈빠따(pāśupata)
인장이다. 구불거리는 뿔을 머리에 달고,
물라반다싸나(mūlabandhāsana)의 인물 주변을
코뿔소, 코끼리, 호랑이, 물소가 둘러싸고,
좌대 아래에는 염소 두 마리가 서로 등지고 있는데,
맨 위에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인더스 문자
여섯 자가 새겨져 있다. 그 의미에 대한
온갖 해석이 이 손톱만한 인장을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문자의 해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그밖에도 국보급의 불상과 신상들,
수준 높은 오래된 세밀화들을 보면서 오전에
딜리핫에 부렸던 여유를 후회했다.
단 서너 시간에 이 박물관을 다 둘러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청아님과 나는 눈물을 머금고,
다음에 다시 또 오자는 다짐을 하며 폐장 시간인
6시를 다 채워 나왔다. 이미 어두워진 델리의 밤.
하우즈 카스의 꽤 고급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휘몰아친 오늘 하루의 벅찬 감동을
서로 이야기했다.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 24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저녁/새벽예불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향기명상 (Aromatherapy)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선명상 (1박2일, 2박3일)
–세조길 걷기 명상
–수정봉 걷기 명상
–스님과 차담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법주사 공양미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는
법주사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 미타사 밝은언덕노인요양원 등으로
기부되어 아프고 힘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양미를 올리시는 불자님들은 부처님처럼 진리의 길을 걷는
부처님의 길을 가시며 거룩한 자비행을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2026. 2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2.14	2 15 보름 입춘기도입재	3 16 미륵재일	4 17 입춘 (05:02) 입춘기도회향 삼재풀이기동	5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6 19	7 20 보월대선사다례 광명진언기도
8 21	9 22 범행대종사다례	10 23	11 24 관음재일	12 25	13 26	14 27
15 28	16 29	17 설날 1.1 초하루 설날합동차례	18 2	19 우수 3 정초기도입재	20 4 월은큰스님다례	21 5 다라니독송기도
22 6	23 7	24 8 약사재일	25 9 정초기도회향	26 10	27 11	28 12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1월 1일 수정봉 해맞이 행사


1월 1일 법주사 종무원 자녀
대학입학 장학금전달



1월 18일 천용, 월용, 삼덕 큰스님 추모다례재





1월 26일 불교대학 17기, 경전반12기 졸업식

●●말사 소식


진천스님 법주사 총무국장 임명

미륵재일기도 – 2월 일정 : 2월 3일 화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2월 일정 : 2월 7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2월 일정 : 2월 5일 목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2월 일정 : 2월 21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매월 2/4째 수요일은 원주실 휴무일입니다. 원주실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속으로!
아름다운 법주사 법주회·국악합창단·다도반 법우님을 모집합니다

법주사 법주회 회원모집

법주(法住)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문다는 뜻으로 오직 법주사와 함께하는 신심있는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인 보시행을 봉사와 신행을 통해 실천하는 법우회입니다.
법주회에서는 병오년 새해 법주회와 함께하실 새로운 법우님을 기다립니다.
법주회 활동을 통해 불제자로서의 의미를 찾고 뜻이 맞는 법우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심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분 : 환희주 (김영숙보살님) **010-9423-3858** / 혜명심 (채연화보살님) **010-5171-4172**

법주사 국악합창단 모집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풀어내고자하는 마음담아 국악합창단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주사 내 모든 행사에서 고운 음성 공양하며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불법의 홍포에 기여하고 법주사의 각종 봉사활동도 함께해주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단원들을 기다립니다. 국가무형문회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소리꾼 함수연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시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국악합창단의 창립맴버가 되어주세요.

함께하는 분 : 금선화 (연용덕보살님) **010-5465-0480** / 무진향 (곽나윤보살님) **010-5482-5862**

다도반 회원모집



차(茶)한잔에 담긴 선(禪)의 지혜, 다도반 도반을 모집합니다.
맑은 차 한잔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전통 다도의 깊은 예와 지혜를 배우며
함께 수행할 인연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법주사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서
차와 함께 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세요.

함께하는 분 : 보문심 (진순자보살님) **010-5498-5546**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대웅보전 세분의 부처님과 수행정진하시는 스님들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가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는 복전福田의 으뜸이며 여래의 웃옷이며 보살의 큰 옷"이라며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자로서의 표상이었습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자로서 불교를 수호해 나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가장 중요한 공양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佛法과 불성佛性의 상징인 가사를 공양하는 일에 두루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고 현세와 내세에 청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가사불사회향 대법회** : 2026년 **5**월 **1**일 금요일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께서
수행과 전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법의 수호와 홍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널리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이 스님들께는 큰힘이 됩니다.

■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김길환 서현숙 백동윤 김순자 김창순 김규영 이장로 김태홍 최성락 민혜숙 박근식 김명숙
조선경 박노근 연용덕 권구영 오연심 충주창룡사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설날 합동차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명절날 가정에서 차례를 모시기 어려우시거나
부처님 도량에서 인연 영가님을 위해 차례를 모셔드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설날 합동차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선망조상님과 일체인연 영가님을 위해 정성으로 차례를 모시고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극락왕생의 길을 내는 공덕을 더하여 넉넉하고 자비로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합동차례일정 : 2026년 **2**월 **17**일(화) 설날 오전10시부터~
합동차례보시 : 한가정 **10**만원

병오년 정초신중기도

신도님과 신도님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부처님 전에 축원합니다.
법주사 청정도량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시작하며 정초산림7일 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정초살림기도는 불법을 수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해주시는 화엄성중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일년간의 모든 재난과 마장을 막고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공덕의 숲을 가꾸는 마중물과 같은 이번 정초살림기도 뜻깊은 인연에 동참하시어
병오년 희망찬 한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재 및 회향 : 2026년 **2**월 **19**일(목) ~ **2**월 **25**일(수)
정초기도동참보시 : 한가족 **3**만원
※입재일 **2**월 **19**일(목)
청주/대전/보은 차량운행합니다.



병오년 정월대보름 사천왕재

법주사 사천왕재四天王齋는 불국토를 수호하고 중생을 이익 되게 해주시는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지키는 호법신인 지국천왕持國天王, 광목천왕廣目天王,
증장천왕增長天王, 다문천왕多聞天王께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예를 올리며
새해의 무탈함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삼보를 지키며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든든한 외호자이신
사천왕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덕 지으시어 새해를 무탈하고 다복하게 열어가세요.

사천왕재일정 : 2026년 **3**월 **3**일(화) 정월대보름
사천왕재장소 : 법주사 천왕문앞
가족축원동참 : **3**만원
※ 사천왕재 당일 청주/대전/보은지역 차량운행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며 지켜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사천왕님의 가피가 모든 법주사 신도님들께
두루하시길 기원합니다.



